

【2014년도 인사이동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어제, 오카야마시 2014년도 인사이동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호엔 좀처럼 화제로 삼지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카야마시의 인사이동 시기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4월 1일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매년 4월 1일 자 인사 작업은 관계자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협의함으로, 올해도 연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시장 취임을 한 지 3개월. 아직 시청 간부의 능력이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단계여서 이번 인사는, 개별 인사의 대부분을 하시모토 부시장에게 맡기고, 저는 재무 행정 개혁에 시점을 두어 다음 3가지를 표명했습니다.

- (1) 시청 직원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향상.
- (2) 정부 파견공무원과 시청직원이 함께 절차탁마(切磋琢磨)함.
- (3) 여성의 등용 도모.

구체적으로는 오카야마 마을 만들기의 방향성을 좌우하게 될 정책국장과 의료·복지의 책임자인 보건복지국장을 정부 파견공무원에서 시청직원으로 교체하고 국가에서 새롭게 No. 2로서 국장을 보조할 정부 파견공무원을 받아들입니다.

정부 파견공무원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시청직원의 톱과 경쟁하면서 좋은 정책을 제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여성 등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1명을 국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간부 경험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섬세한 대응이 가능한 인재로서, 여성이 빛나는 마을만들기와 위기관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사과장과 도쿄사무소 부소장 등에도 처음으로 여성을 등용하는 등 과장 이상의 여성 비율을 5.7%에서 6.5%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 직원의 인원 구성을 보면 이번 인사가 최선으로 앞으로 더욱더 여성 등용을 도모하려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아울러서, 국장·심의관급의 간부 직원도 143명에서 134명으로 삭감함으로 재무 행정 개혁의 시점도 관철했습니다

이러한 인사 전체의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께 부탁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신경이 쓰이는 일임은 틀림없습니다.